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k.net

주일오전설교

죽음과 영생

[성경본문] 로마서 6:23,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주를 보내주신 날이다. 세상은 구원이 필요한 세상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그는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삼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택하신 자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고 그의 부활하심은 그들의 구원과 부활과 영생을 확증하시기 위함이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은 자들의 모임이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며 그의 가르침을 따른다.

세상의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구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이 세상은 한파 디로 수고로운 세상이다. 주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라고 표현하셨다(마 11:28).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의 삶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안의 길을 알지 못한” 삶이라고 말했다(롬 3:16-17).

가난은 세상의 불행한 현실의 대표적 내용이다. 1998년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전세계에 8억 2,800만명이 기아 상태에 있으며 해마다 1,800만명이 굶주림과 이로 인한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 이후 상황이 더 나아진 것 같지 않다. 수고로운 세상의 현실은 가난과의 싸움이며 여전히 세상의 여러 곳에는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가난을 극복하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다.

질병은 세상의 불행한 현실의 또 하나의 대표적 내용이다. 세상은 많은 질병들의 세상이다. 게다가 역사상 세계적으로 무서운 전염병들이 있었다. 14세기 유럽에서 흑사병(페스트)으로 약 2,500만명이 죽었고 세계적으로 약 1억명 이상이 죽었다고 한다. 월드북 사

전에 보면, 1894년 후 약 20년 동안 인도에서 같은 병으로 천만명 이상이 죽었다고 한다. 또 1918년에 시작된 스페인 독감으로 약 1,500만명이 죽었고(약 5,000만명 이상이라는 주장도 있음), 1968년에 시작된 홍콩 독감으로 약 100만명 이상이 죽었다고 한다. 에이즈 즉 후천성 면역결핍증으로 죽은 자들은 1981년 처음 보고된 이후 2014년까지 30여년간 온 세계에서 약 4,000만명이고, 매년 약 100만명 이상 죽으며 현재 에이즈 감염자수는 약 3,7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2019년 12월에 시작된 코로나 전염병은 2년 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세계 223개국에서 약 2억 8천만명이 확진되었다가 약 2억 5천만명이 격리해제되었고 약 540만명이 사망했다. 우리나라도 5천여명이 사망했다.

학살도 세상의 불행한 현실의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다. 천주교회는 중세 1,200년 동안 이교 박멸의 명분으로 약 5,000만명을 학살하였다. 또 공산주의는 1917년 러시아 공산혁명 이후 온 세계에서 약 8,500만명 내지 1억명을 숙청, 굶주림, 집단 추방, 강제 노역 등으로 죽게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명을 포함해 약 1,100만명을 학살했다고 한다.

또 전쟁은 가장 공포스러운 죽음의 한 원인이다. 역사상 수없이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특히 20세기의 제 1, 2차 세계대전은 전세계에서 약 7천8백만명의 사망자를 내었다. 또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우리 동족 약 330만명을 죽게 하였고, 미군 등 유엔군을 약 37,000명, 중공군을 약 90만명 죽게 했다. 또 2011년 3월에 시작되어 10년간 진행 중인 중동의 시리아 내전은 약 38만명의 생명을 죽게 했다. 그 뿐만 아니라, 또 1990년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전세계적으로 인공유산 즉 낙태로 매년 5,500만명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 또 전세계적으로 매년 100만명 이상이 자살로 생을 끝낸다. 이 외에도 더 있겠지만, 이것이 세상 현실이다.

원인은 죄

세상의 불행한 현실, 즉 수고롭고, 가난과 굶주림이

있고 질병들이 있고 자연사뿐 아니라, 학살, 전쟁, 낙태, 자살로 인해 많은 생명들이 죽었고 또 죽고 있다. 성경은 세상의 이런 불행한 현실이 사람의 죄 때문에 왔다고 말한다. 오늘 본문은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말한다. 세상의 불행한 현실은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난과 굶주림을 겪고 질병들로 고생을 하고 자연적으로 늙고 죽을 뿐 아니라, 학살과 전쟁이 있고 낙태와 자살이 있다. 죄가 없는 천국에서는 불행한 일들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죄가 많은 이 세상에서는 불행한 일들, 고생과 죽음이 많다.

사람들은 어떤 죄들을 지었고 또한 짓고 있는가? 로마서 1:18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좇아 나타난다”고 말한다. 이 성경구절은 죄를 불경건과 불의로 요약해 말한다. 불경건은 창조자와 섭리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들, 거짓된 신들이나 우상들, 특히 현대인들에게는 돈과 육신의 쾌락에 큰 가치를 두는 것이다. 돈은 현대인들의 우상이 되었다. 탐심은 우상숭배이다. 돈 사랑은 일반 악의 뿌리이며 그 자체가 큰 죄악이다.

또 세상에는 많은 불의한 일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음란과 다툼이다. 사람들은 결혼 관계를 귀히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서로 좋아한다고 말하며 음행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행위들을 매우 미워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들이 서로 사이 좋게 지내지 않고 다투며 원수 맺는 것을 미워하신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신체적, 물질적 해를 끼치고 거짓되이 비방하여 남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 등의 행위들은 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들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친히 주신 십계명을 어기는 모든 죄들을 미워하신다. 고린도전서 6:9-10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동성애자들]나 도적이거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말하였다. 모든 죄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

죄로 인해 불행해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가 구주 예수님이시다. 성탄절

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날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불행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 구주를 세상에 보내주신 날이기 때문이다. 구주 예수께서는 죄와 죄의 결과인 모든 불행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다. 구주 예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삼일 만에 부활하셨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명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영생을 얻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도행전 17:30-31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고 말했다.

회개는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사람은 창조자와 섭리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하나님 없이 살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생활에서 돌이켜 창조자와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섬기며 살아야 한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주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다(요 3:16).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전통사본).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했다(행 16:31). 구원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의미하며 구원 얻은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며 영생을 누릴 것이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과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은 자들은 이제 성경말씀에 순종하며 선하게 살아야 한다. 로마서 6:22는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성도들의 정상적 삶이다.

이 세상은 수고로운 세상이고 가난과 질병과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와 같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싸우고 있고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고 죽었고 또 죽고 있고, 게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고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 이런 현실은 사람들의 불경건과 불의의 죄 때문에 왔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행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외이들을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대속 사역을 이루셨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구원을 얻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부르신다. 오늘도 회개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주일오후설교

성막을 세움

[출 40:1-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궤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우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궤휘장**을 달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정월 초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다. 17절에 보면, 그 날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제2년 정월 초하룻날이었다. 성막은 ‘회막(會幕, 오헬 모에드) 곧 ‘만남의 장막’ 혹은 ‘만남의 집’이라고 불리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는 장소라는 뜻이다. 출애굽기 29:42-43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고 말씀하셨다. 회막 안 지성소 안의 속죄소는 특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장소이었다. 출애굽기 25:22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속죄소에서 나와 만나겠다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말하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증거궤 혹은 법궤 곧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 있는 나무상자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법궤를 가리우라고 명하셨다. 그 휘장은 지성소의 문이다. 그는 또 모세에게 떡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진설병’이라고 불리는 하나님 앞에 두는 떡을 놓고, 또 등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 휘장 밖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라고 명하셨다. 그 휘장은 성소 곧 성막의 문이다.

[6-11절]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물대야)을 회막과 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궤장)을 치고 뜰 문에 **궤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물대야)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법궤와 금향단과 물대야와 번제단은 일직선 상에 놓였다. 그것들은, 위에서 내려다 보면, 떡상과 등대와 더불어 십자가 형상을 이룰 것이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준다. 번제단은 죄인들이 제사를 통해 죄 사함을 얻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함을 보이고, 물대야는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들이 영욕으로 깨끗해야 함을 보이고, 떡상과 등대는 말씀과 성령의 빛을, 또 금향단은 기도를 상징하며, 그런 후에야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인다.

[12-16절]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발라) 거룩하게 하여 그로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겹옷(반포 속옷(tunic))을 입히고 그 아비에게 기름을 부음(바름)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발라서)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바름)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17-21절] 제2년 정월 곧 그 달 초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락을 락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성막 안 지성소에는 한 개의 기구가 있었다. 그것은 십계명 돌판을 넣어둔 법궤 혹은 언약궤이었고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불렀다.

[22-28절] 그가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편으로 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 . .

성소에는 세 개의 기구들이 있었다. 성막의 입구는 동쪽을 향하고 있고, 입구에서 속으로 볼 때, 오른쪽 즉 북쪽에 떡상이 놓였고 왼쪽 즉 남쪽에 등대가 놓였고 가운데 분향단이 놓였다.

[29-33절]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물두멍(물대야)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고 자기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의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행하였더라.

성막 뜰에는 두 개의 기구가 있었다. 하나는 번제단이고 다른 하나는 물대야, 즉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 큰 물그릇이었다.

[34-38절]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와 영

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 출발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 출발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옛 시대에 구름을 자신의 영광의 표시로 사용하셨다. 또 구름은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기도 하였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모세는 성막을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대로 만들었고 세웠다. 전장(前章)에서 열 번이나 반복해 기록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성막과 그 기구들을 만들었다는 말씀이었다(39:1, 5, 7, 21, 26, 29, 31, 32, 42, 43절). 본장 16절도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고 말하며, 본장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는 말씀이 일곱 번이나 반복해 기록되어 있다(40:19, 21, 23, 25, 27, 29, 32절). 이것은 온전한 순종을 증거한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였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온전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다 믿고 다 순종해야 한다. 이것은 구원 얻은 성도들의 미땅한 삶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딤후 3:16-17).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성경을 가감하지 말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며 봉사해야 한다.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성경을 열심히 읽고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둘째로, 모세가 성막을 세웠을 때 구름이 성막에 가득 하였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중에 거하시는 표이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신약교회의 모형이다.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고전 3:16). 성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표가 있었듯이, 성령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롬 8:9; 엡 1:13).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한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함께하시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 날들과 떠날 시간을 지시하셨다(민 9:15-23).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와 인도이었다. 이것은 오늘 날 하나님께서 신약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모형적

으로 보인다.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에 택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자기 백성을 광야 같은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는 우리를 성경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함과 기도와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수요일 설교 주권적 작정자와 섭리자이심

[사 46:1-13] **벨은 엮드러졌고 느보는**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이방신들은 다 헛되다(1절). 그것들은 생명 없는 것이다. 그것들은 활동하지 못하고 사람이 어려울 때 그에게 구원이나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과 그 신들을 마지막 날에 다 멸하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18장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인 큰 성 바벨론이 마침내 무너질 것을 예언한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소망하지 말고, 온 세상이 다 지나가는 것이며 불사르기 위해 간수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요일 2:17; 벧후 3:7).

둘째로, 여호와께서만 참 하나님이시며 주권적 작정자와 섭리자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9절). 그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다. 모세는 신명기 6:4-5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했다. 예레미야 10:10,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참 하나님이시며 주권적 작정자와 섭리자이시다. 우리는 오직 그를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마침내 구원하실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릴 때부터 늙을 때까지 품으시며 지키시고 구원하실 것이다(3-4절).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구원과 영광을 주실 것이다(13절). 신약 성도가 장차 받을 복도 영광이다. 주께서는 “나를 보내신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요 6:39). 또 사도 바울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하였다(롬 8:30). 장차 우리가 들어갈 새 세계는 지극히 영광스러운 곳이다(계 21:10-11).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항상 감사하며 찬송해야 한다(엡 1:6).